

목어

어우러짐의 미학

요즘의 우리들은 춤을 추어도 남녀 또는 여럿이 같이 추는 춤이 별로 없지만 강강술래나 단오 민속 놀이를 보아도 혼자서 추는 춤보다는 같이 추는 춤이 더 많았다. 다른 나라의 민속춤 하나나 둘 또는 여럿이 어울려서 추는 춤이 더 많았다. 다른 나라의 민속춤 하나나 둘 또는 여럿이 어울려서 추는 춤이 더 많았다.



산골짜기에서 흘러온 시냇물이 강물이 되어 한 맛으로 바다에서 만난다. 바다는 어떠한 물이라도 가리지 않고 넓은 가슴으로 맞이한다. 찬물과 더운물이 만나는 곳에는 플랑크톤이 많이 살고, 그들을 먹이로 삼는 어류 또한 많이 산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만나는 섬진강변 화개장터엔 서로에게 없는 것을 나눠 주고 같이 채우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폭력의 힘으로 다가올 때 슬기롭게 대처했던 인도의 포용력 있는 불교문화는 간다라 예술과 함께 미려한 왕문이라는 서로 다른 종교, 문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동서양 대화의 좋은 본보기를 인류 앞에 선사했다. 자기 고집과 권위의 강요보다는 진리와 옳음에 근거하여 서로를 인정하는 대화법은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방편이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날 때 처음엔 탐색하느라 충돌의 작은 아픔도 있기는 하지만 만만 기쁨을 나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인류의 보편사였다.

그런데, 조상들이 이루어낸 만남의 기쁨을 현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끌어내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 종교의 우수성은 다른 종교까지도 감싸안을 수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수련의 계절을 단단 모슬렘들은 반성, 분발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불상파괴중지 및 원형복구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 두고두고 인류문화재를 파괴한 후손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인류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법현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김규석
www.buddhanews.com
www.buddhania.com
www.mahamail.co.kr
www.yosiamun.com

매장문화재 보존책 강화
문화재사범 엄중 처벌

문화재청을 주요사업

각종 개발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2005년까지 완성된다. 또 경주지역 발굴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올해 안에 착공돼 2003년 문을 연다.

문화재청은 9일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과 '동산문화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근대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 최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에서 펴낸 <용인의 불교유적>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 지역의 옛 절터는 모두 24곳.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10곳이 기본적인 학술조사도 없이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호 책임연구원은 "기초적인 지표조사만 돼 있었어도 무분별하게 훼손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각종 개발사업 시 매장문화재 보호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시 군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2005년까지 완성한다.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 문화유적 분포망을 구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구제발굴의 증가로 매년 급증하는 출토유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와 경주출토유물보관동 건립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경우 황룡사지 등을 중심으로 매년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현재 5만점을 넘어서고 있으나 마땅한 보관시설이 없어 임시 건물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3년

까지 총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주출토 유물보관동을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산문화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지난 달 28일 '문화재보호법 중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사범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써 우리 문화재의 보고이면서도 그동안 관리 소홀로 도난과 분실에 시달려온 사찰소유 불교문화재의 관리가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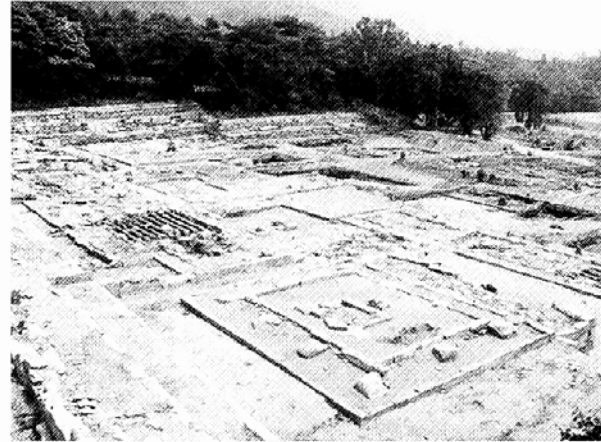
이번 법개정으로 아직 국가와 시·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일반 동산문화재(비지정문화재)를 출토된 경우에도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형사적 처벌(2년이상 유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 통계에 따르면 1988년부터 99년까지 도난된 사찰문화재는 모두 453건. 이 가운데 국가와 지방지정 문화재는 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비지정문화재

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문화재 가지정제도'도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확대 적용된다.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 근대 건축물 등 문화재로서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면서도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문화재에 대해 '근대 문화유산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장차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유산을 미리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등록된 문화유산에 대해 수리·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건축물 개조 때는 지도·권고를 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1차로 208건의 근대기념물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보존·전승: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대학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명예보유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자연유산의 효율적 보호체계를 구축을 위해 2004년까지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명승·지질·광물 등 자연유산자원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해 이들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nia.com)



◇문화재청은 올해 매장문화재의 과학적 보호를 위한 시설물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해 다수의 보물급 유물이 출토된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지 전경.

조계종 '괴문서 파문' 계파간 자리다툼 '원인'

조계종 150회 중앙총회 개최(20일)를 앞두고 포교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스님을 비방하는 괴문서가 떠돌고 있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동국학원, 조계사신협 금융사고 등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정점으로 걸려있어 12대 총회 후반기도 정점으로 소모할 가능성이 많다.

재가연대를 사칭, 성명서 형식을 취한 괴문서는 우편을 이용해 6일 본사에 도착했다. "00스님은 98년 종단사태의 원흉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폭로할 것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가연대는 물론 총회 각 종책 연구모임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가연대는 8일 언론보도문을 통해 명의를 도용하여 배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재가연대는 또 "출처를 밝히지 않고 교단 내의 문제를 괴문서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공장이 정당하다면 이름을 밝히고 절차와 공의체계를 존중하면서 사부대중의 여론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포교원장 임명을 놓고 계파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총회 내 종책연구모임의 소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 종책연구모임

에 속해 있는 2선의 총회위원은 "총회 전체를 옥죄게 하는 일을 종책연구모임에서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괴문서가 작성돼 우편으로 교계연론사에 배달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종책연구모임에서 제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각 종책연구모임이 종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보다는 자파의 세불리기에 치중해왔다는 비판이다. 그 동안 총회는 계파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보여온 것이 관행화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총회에서 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 동안 총회가 보여온 행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정성은 기자(swjung@buddhania.com)

조계종 환경위원장 성타스님

"환경훼손 불사 철저히 막겠다"

국내·외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7일 총무원에서 발족식을 갖고 위원장에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을 선출했다. 성타스님은 현재 대자연환경보전회 이사장을 맡아 대구·경북지역의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불교환경운동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환경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성타스님의 환경불사의 원력을 들여보았다.



성타스님의 환경불사의 원력을 들여보았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환경관련 총령기구라는 점에서 국제 내외의 기대가 큼니다.

▲마구잡이식 국토개발로 산림과 농지, 갯벌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이 심각한 지역이 이르고 있습니다. 사찰 또

마구잡이 개발 억제 환경교육 정례화 사찰 오수시설 유도

으로 인해 관광위락 단지화되면서 수행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쟁과 탐욕으로부터 사찰과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사찰과 불자들이

이 해야 할 바른 지침과 행동양식을 일깨우면서, 부처님의 연기사상과 자비정신으로 사회를 선도해야 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요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의 사찰환경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사업, 종단 환경정책의 수립은 물론 환경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 환경관련 대정부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 각종 조사 및 연구사업, 종단 환경교육, 민간환경단체와의 연대사업 등 실질적인 집행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사찰의 대형불사가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해 왔는데요.

▲환경단체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전통사찰이 한국의 산천을 지켜온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환경위원회는 이런 시각을 고려해 환경을 훼손하는 대형 불사를 강력히 규제하는 지침을 검토중입니다. 또 분발사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정례화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의 예산자원을 얻어 사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불교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연대방안은.

▲불교환경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종단 행정체계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교단체는 물론 일반환경단체와도 적극 연대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환경운동은 바람직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불자들이 녹색조명운동, 녹색교통운동, 재활용 운동 등 환경친화적 생활을 실천하고, 산사에 가면 쓰레기를 줍고 나무도 심는 작은 환경운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國獨 慈悲하신으로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國獨聖像 이시다. 二五〇五年二月二十一日 小松 玉翁謹書



주진서

고불승림 방장 서용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